

“오.. 오늘은 어떤 묘기를 보여주실 건가요-!”

묘기의 천재 **조!**와 반응의 천재(?) **브레드**의 조합은 간단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친구!라는 이름으로 말이죠. 친구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놀며 여럿 일을 함께하는 사이가 아니겠나요. 심지어 조는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엄청난 묘기를 선보이는 멋진 친구이죠.

브레드는 그 옆 방청객 정도의 위치랄까요? 물론 브레드는 그 관계를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조는 그에게 묘기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묘기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걸요-! 그 대신 브레드는 조가 자신에게 묘기를 하나씩 알려주면 대가로 작은 조각 인형을 쥐여주고 있습니다. 하나가 오면 하나가 가는 이른바 기브 앤 테이크. 배운 것을 모두 해내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는 해낼 수 있게 된 방면에서 근 4년간 조는 그에게 무척이나 좋은 친구이자 스승이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.